

#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공공기여량 2380억원

### 전주시, 토지가치 상승분 100% 확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등 활용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으로 결정됐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한방직 조감도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

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량 2380억 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지난 3일과 5일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응 상황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청취했다.

##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현장점검

### 김인태 전주 부시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정비사업 추진 상황 청취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지난 3일과 5일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응 상황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청취했다.

먼저 김 부시장은 지난 3일 전주천과 만경강이 접하는 곳에 위치한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찾아 방재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진기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 만경강으로 강제 배수하는 시설로, 분당 1,150톤의 빗물을 강제 배수할 수 있는 펌프 5대와 최대 4만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갖추고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달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1.4km 구간의 배수로와 유수지 1만2000㎡에 대해 퇴적토 준설공사를 완료했으며, 기간제근로자와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상주 관리토록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진기들 배수펌프장의 비상 운영 계획과 유수지 관리상태, 수문 및 제진기 등 설비 작동상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또,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배수

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5일에는 완산구 도토리골과 인근에 위치한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정비공사가 추진 중인 이곳은 자연비탈면 구간과 인공비탈면 구간 등 절개지 2만2863㎡(L=230m, H=33~40m)에 대한 사면 정비와 배수시설·도로시설 등의 정비 추진되고 있다.

이에 김 부시장은 집중호우 시 지반 약화로 인한 토사유출과 암반 탈락으로 인한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개지 사면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 구간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인태 부시장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의 현장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업무에 책임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 기재부 예산실 방문해 핵심사업 필요성 설명 등 지원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날 우 시장은 16개 핵심사업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국가 예산의 키를 쥐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실무과장 5명을 차례로 만나 내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핵심사업은 △구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드론축구 중주국 위상 강화를 위한 '2025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아중호수를 활용한 K-컬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라 K-Lake 조성' △장예인과 비장예인이 협력해 사회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지역의 주력산업과 역사가 융합

된 지역특화 과학·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국립 전주전통과학관 조성' 등이다.

우 시장은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우범기 위원장을 면담하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문화특구에 전주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연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려 왔다.

대표적으로 우 시장은 지난 1월 말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해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며, 이어 4월에는 전주를 찾은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간재선비문화수련원과 과학관 건립 등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오는 9월 3일까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부처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주시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종 예산안이 제출되는 날까지 기재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 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 행복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5일 '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 주관으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두배! 영양만점! 행복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덕진구 사랑의올타리봉사단은 지난 5월 밀반찬음식 지원에 이어 외부활동이 적은 소외계층 및 거동불편 어르신

들에게 부모님과 가족이 드신다는 생각으로 돼지불고기, 무생채, 미역줄기볶음, 조미김 등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덕진구 사랑의 올타리 지정기탁 기금과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올타리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많은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정

성이 가득한 반찬을 지원해 더욱 뜻깊은 나눔 행사가 되었다.

이성희 회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며 입맛이 없어지는 여름철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단 하루라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정성껏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것다"고 말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항상 곁에서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살피는 봉사자들 덕분에 말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보살핌으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은 심정지 상태의 응급상황이 었다. 2022년 123명 대비 57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4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폭

염으로 인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대비 대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대비 출동태세 확립 △구급대원 폭염 대응 응급처치 능력 강화 △폭염대응 예비출동대 운영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및 상담 강화 등을 추진 한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출동태세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12회

# 무주산골영화제

## Muju Film Festival 2024

2024. 6. 5. - 6. 9.

www.mjff.or.kr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자연박물관무주

전주 MDC

한글서체문화재단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협찬

ROMANTIC CAFE

SOULZ

TORRIDEN

비디오스타

MARITA

HIBROW

진우건설(주)